

# 최경주 “내친 김에 우승 넘본다”

## PGA 소니오픈 첫날 18번 홀서 이글 6언더 64타...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2위



최경주가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소니오픈 1라운드 3번홀 페어웨이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위성미 샷 난조 컷오프 위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2주 연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최경주는 12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골프장(파70·7천60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 첫날 절정의 아이언샷 감각을 과시하면서 6언더파 64타를 작성, 대회 시작전 위성미에게 “여자 대회에 먼저 신경쓰라”고 충고를 한 세계랭킹 10위인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에 1타차 단독 2위를 달렸다.

그러나 이 대회 4년째 초청을 받아 출전한 위성미(18·나이키골프)는 샷 난조를 보인 끝에 8오버파 78타로 끝에서 두 번째인 143위까지 처져 또 ‘골짜기 컷오프’의 위기를 맞았다. 캘리포니아를 재수생 위창수(35·테일러메이트)는 이번과 70타로 공동 61위, 재미교포 기대주인 앤서니 김(22·김하진)은 2오버파 72타로 공동 95위에 그쳤다.

홀(파4)과 17번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특히 최경주는 18번홀(파5)에서 300야드가 넘는 호쾌한 티샷을 날린 뒤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려 14m짜리 이글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한꺼번에 2타를 줄여 공동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이후 파를 지키던 최경주는 7번홀(파3)에서 2m가 채 안 되는 버디퍼트를 놓쳤지만 마지막 9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려 2퍼트로 마무리하면서 버디를 추가,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위성미는 1라운드에서 버디 2개를 잡았을 뿐 보기 6개에 더블보기 2개를 범해 8오버파 78타를 쳤다. 작년 대회 1라운드(79타)때와 비슷한 성적이다. 그의 샷은 말 그대로 들쭉날쭉이었다. 클럽을 떠난 볼은 바위에 맞고 튀기기 일쑤였고, 두 차례나 물에 빠지는가 하면 야자나무를 맞고 엉겁결에 빠지는 등 ‘천만달라’의 소년’이라는 애칭이 무색할 만큼 곤장 수난을 겪었다.

작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삼성웰드 챔피언십때 오른쪽 손목을 다쳐 침을 맞고 있는 위성미는 이날 “그래도 경기는 할 수 있다”며 압박봉대를 감고 출전했으나 경기 도중 간간히 손목을 흔들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축구종가’ 자존심 베컴 美 LA 갤럭시에서 뛴다

## 5년간 2,336억 받을 듯



잉글랜드 미남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31·레알 마드리드)이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로 이적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만 모으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 시즌 일곱 경기 밖에 나오지 못해 심한 ‘퇴출 압박’을 받았던 그는 가족, 주변 지인과 상의한 끝에 유럽 빅 리그와는 전혀 다른 미국 무대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베컴은 8월부터 LA 갤럭시 소속으로 뛰지만 미국 축구계는 최고 스타가 온다는 사실에 벌써 흥분하고 있다. 베컴의 미국 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스로 2~3년 전부터 미국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전성기를 지나면서 출전이 보장되는 무대가 매력적으로 느껴진 셈이다. 여기서 미국 무대가 유럽 빅 리그 못지않은 몸값을 제시한 점도 작용했다. 공식으로 발표 되지 않았지만 베컴은 5년 계약으로 2억4천800만달러(2천336억원)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적료에다 연봉(주급), 각종 스폰서십, 초상권 수입 등을 모두 더한 액수다. 한편 LA 갤럭시는 흥행보(38)가 2002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뛰던 국내 팬에 친숙한 팀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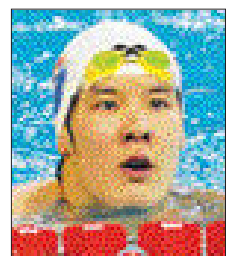


제23회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단장 홍양자 이대교수)이 12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선수단은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종목에 123명으로 구성돼 17일부터 27일까지 동계(대회)에서 열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 박태환 ‘새치기’ 당한 세계랭킹 회복

### 국제수영연맹 홈페이지 기록 수정

국제수영연맹(FINA) 홈페이지(www.fina.org)의 실수로 낮아졌던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의 세계랭킹이 바로 잡혔다. 12일(한국시간) FINA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까지 각종 정구코스(50m) 대회에서 작성된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된 2006년 랭킹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와 400m 2위, 200m 6위에 올랐다. FINA 홈페이지는 작년 12월2일자로 수정된 랭킹에서 파울 비더만 등 독일 선수의 쇼트코스(25m) 기록을 정구코스 랭킹에 잘못 올려놓는 바람에 박태환은 자유형 1500m 11위, 400m 3위, 200m 13위로 크게 저평가됐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고쳐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정된 랭킹에는 도하아시안게임 때 기록이 포함됐는데 당시 자유형 1,500m에서 14분55초03의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박태환은 러시아의 유리 프릴루코프(14분51초9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은 또 자유형 400m에서는 지난해 8월 범태평양수영대회 때 기록인 3분45초72로 클레트 켈러(미국, 3분44초27) 다음으로 빨랐다. 자유형 200m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1분47초12를 인정받아 6위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3일(토)
  - ▲PGA투어 소니 오픈 2R(09:00·SBS스포츠)
  - ▲NBA(워싱턴-뉴올리언스)(10:00·MBC ESPN)
  - ▲ATP테니스 쿵용 클래식 결승전(12:20·SBS스포츠)
  - ▲프로농구(전자랜드-KT&G)(14:50·Xports)
  - ▲V-리그(삼성화재-대한항공)(13:30·KBSN Sports), <KT&G-GS칼텍스>(16:00·KBSN Sports)
  -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세계-삼성생명>(16:50·SBS스포츠, 17:00·MBC ESPN)
- 14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

- 아스톤빌라)(00:00·MBC ESPN)
- ▲프랑스리그(RC랑스-릴)(01:05·SBS스포츠)
- ▲PGA투어 소니 오픈 3R(09:00·SBS스포츠)
- ▲V-리그(KAL-현대)(13:50·KBS1)
- ▲V-리그(삼성화재-상무)(13:30·KBSN Sports), <GS칼텍스-흥국생명>(16:00·KBSN Sports)
-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우리은행-신한은행)(16:50·SBS스포츠)
- ▲프로농구(동부-KCC)(14:50·Xports), <모비스-오리온스>(17:00·Xports)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레딩)(22:30·MBC ESPN)
-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팔레르모-우디네세)(22:30·KBSN Sports)
- 15일(월)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뉴캐슬)(01:00·MBC ESPN)

# 박지성 ‘맑음’ 이영표·설기현 ‘흐림’

### 프리미어리그 3총사 기상도

부상에서 회복한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기상도는 대체로 맑은 편이다. 설기현(28·레딩FC)과 이영표(30·토트넘)가 바라보는 하늘은 어떤 때는 맑은 햇살이 비추지만 때로는 구름이 잔뜩 끼여있기도 하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셈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삼성총사가 13일과 14일 밤(이하 한국시간) 정구리그 경기에 다시 출격하는 가운데 서형욱 MBC 해설위원, 박문성 SBS 해설위원, 장원구 SBS 스포츠 해설위원 등 전문가들에게 기상예보에 빗대어 각자의 팀내 입지를 물었다. 박지성은 최근 골 기회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해 팬들의 아쉬운 탄성을 자아내고 있지만 포지션 경쟁 기상도는 대체로 맑다는 쪽에 의견이 일치했다. 박문성 위원은 “부상을 털고 일어서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해야 한다”고 했고, 장원구 위원은 “선발이나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출전하는 면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작년 11월19일 프리미어리그 3호골을 뽑아낸 뒤 주춤하고 있는 설기현은 기록이 심하다는 평가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설기현에게는 맑음과 대체로 맑음, 대체로 흐림이라는 평가가 혼재했다. 김원 리틀과 측면 미드필더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부터 지속적인 플레이로 코칭스태프의 눈에 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영표는 아직도 이적 파문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서형욱 위원은 이영표가 왼쪽 윙백으로 최근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쳐 맑은 하늘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은 평소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보여줘야만 AS 로마(이탈리아) 이적을 스스로 열어버린 앙심을 견뎌낼 수 있다고 했다.

# J-리거 김진규 친정팀 전남 복귀

베어백호의 젊은 수비수 김진규(22·이와타)가 친정팀인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로 복귀한다. 지난 2005년 2월 전남에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주빌로 이와타로 완전 이적했던 김진규는 12일 오후 전남 구단과 최종합의를 마친 뒤 입단에 합의했다. 프로 농구(동부-KCC)(14:50·Xports), <모비스-오리온스>(17:00·Xport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버튼-레딩)(22:30·MBC ESPN)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팔레르모-우디네세)(22:30·KBSN Sports)



하지만 선수 본인이 국내 복귀를 강력하게 원했고, 기왕이면 2년 전 해외진출에 흔쾌히 동의해줬던 ‘친정팀’ 전남으로 가겠다는 결정으로 내리면서 ‘허정무 사단’에 힘을 보태게 됐다. 연봉 등 세부계약 내용은 이와타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추후 발표하기로 했으며, FA(자유계약) 선수로서 이적료 부담이 없는 만큼 구단측도 선수에게 두둑한 연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